

지역 경기지표 ‘악화일로’... 복합경제위기에 휘청

#일주_이슈

글로벌 경기 둔화·내수 부진 장기화
제조·건설 지역주력산업 침체 심화
반도체 등 수출 급감... 생산도 감소
소비자물가 광주만 5%대 고공행진
경기부양·금융 지원·규제 개선 시급

광주·전남 지역경제가 위기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내수 둔화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제조업의 수출·생산 ‘동반 부진’ 현상이 심화되고, 건설산업은 역대 최악의 협박 속에서 업체들의 채산성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농축수산업도 소비 위축에 따른 판매 부진에 생산비용 상승까지 겹쳐 농가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 지역경제가 총체적 난국이다.

경기는 갈수록 악화되고 물가는 끊임없이 오르면서 복합적인 경제위기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어 특단의 경기부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12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호남지방통계청, 광주본부세관 등 지역 주요 경제기관들이 최근 내놓은 경제동향 자료를 종합해보면 수출, 생산, 물가, 소비 등 각종 경기지표가 악화일로다.

우선 지역경제를 이끄는 수출과 생산이 지역 주력 품목의 부진으로 크게 악화됐다. 올 들어 1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8.5% 감소한 46억13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수입은 41억62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4억5100만 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수출은 전달 49억2600만 달러와 비교해도 6.3% 감소했고,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전년 7억4800만 달러 대비 39.7%나 줄었다. 수출은 지난해 7월 62억6900만 달러로 정점을 찍은 뒤 내리막 길을 걷다 11월부터는 50억 달러 아래로 쪼그라 들었다.

수출 감소는 광주·전남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가전, 철강 등의 부진이 큰 원

인으로 작용했다. 반도체의 경우 지난 1월 수출액은 3억9266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 4억6216만 달러에 비해 15%나 급감했다.

수출이 줄면서 생산도 감소했다. 자동차를 비롯해 전기장비, 섬유제품, 화학제품, 1차금속 등 주력 업종의 타격이 컸는데, 지난 1월 광주지역 광공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6% 감소했고, 전남 지역은 10.3%나 낮아졌다.

지역 건설업은 주택건설경기 침체 여파로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해 광주·전남·전북 등 호남권 건설수주액은 16조1575억원으로 전년 대비 6.7%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4분기 광주지역 수주액은 5071억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74.9%나 줄어들며 역대 최고 감소율을 보였다.

국내 건설공사 총수주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미미한 실정이다. 지난 1월 전국 건설업체의 총수주액 17조4912억원 가운데 광주지역 주요 종합건설업체의 건설수주액은 겨우 5894억원으로 비중은

3.4%에 그쳤다. 전남 역시 3402억원으로 불과 1.9%의 비중을 보였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대출금리 상승과 매수심리 위축 등으로 인해 아파트 거래 감소, 미분양 증가, 집값 하락 등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농축수산업 역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농산물의 경우 월동채소 공급이 감소했음에도 소비심리 위축으로 예년대비 출하액이 큰 폭으로 줄었고, 만감류 판매도 부진한 상황이다. 축산업은 사육두수 증가와 사료값 상승, 도매가 하락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수산업도 어획량 감소와 함께 유통비·양식장 운영비 증가, 이자 부담 등으로 업황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지역 소비자물가는 고공행진이다. 지난달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개월 만에 4%대로 내려갔지만, 광주지역은 오히려 5.1% 상승했다. 전국 특·광역시 중 유일할 5%대다. 체감물가를 반영하는 생활물가지수 역시 지난 1월 대비

0.3%, 2022년 2월 대비 6.1%나 올랐다. 높은 소비자물가는 30%대에 달하는 공공요금 상승률과 먹거리, 외식비 인상 등이 주원인이다. 일례로 지난달 광주 도시가스비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35.7%나 급등했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전방위적인 경기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지역경제가 큰 위기를 맞고 있다”며 “경제위기 타파를 위해선 정부와 자치단체 차원의 경기부양책과 금융 등 기업 지원은 물론 규제 개선과 신산업 중심의 성장동력 발굴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2·3면

최권범 기자 kwonbeom.choi@nlbo.com

광주사람들 (507/1000)

이승우
전 불령 국가대표 코치

▶관련기사 17면



박지원 “민주당 내홍 접고 단결해야”

본보 서울푸드 인사이트 포럼
박 전 국정원장 초청 강연

2023 전남일보 서울푸드(Soul Food) 인사이트 포럼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서울푸드 인사이트 포럼은 시대의 키워드를 포착하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언론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전남일보가 주최, 지역 오피니언 리더들이 참여하고 있다.

본보는 지난 9일 광주 동구 호남동 라마다플라자 총장호텔 13층에서 서울푸드 인사이트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노동일 전남사회복지공동회 회장,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 정원희 보해양조(주) 부회장, 김호상 광주축산

농협 조합장, 전연수 원광전력 회장, 정찬기 광주빛고을50+센터장 등 ‘서울푸드 마음의 양식’ 회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강연자로 나서 ‘호남 정치 개혁의 길’이라는 주제로 지역 정치 현안을 진단했다.

박 전 원장은 ‘정치 9단’답게 현 정부, 여야에 대한 평가와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을 챙기지 못하면 민주당이라도 챙겨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됐다. ‘수박’ 등으로 칭하며 내부에서 다들 게 아니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고 단결해 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4면 김혜나 기자



전남일보 주최로 열린 2023서울푸드 인사이트 포럼이 지난 9일 광주 동구 라마다플라자 총장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초청강사인 박지원 전 국정원장, 노동일 전남사회복지공동회 회장, 정찬기 광주빛고을50+센터장, 김호상 광주축산농협 조합장, 이미경 광주시교박 청소년지원센터협의회장과 서울푸드 회원, 문병익 전남일보 경영본부장, 박성원 편집국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양배 기자

제20회 호남마라톤

대회일시 2023년 4월16일(일) 오전7시~
대회장소 승촌보 영산강문화관 뒤 광장
대회코스 승촌보 영산강문화관 ~ 나주 영산교
종 목 남·여 개인전 10km, 하프
참가비 30,000원

참가신청 호남마라톤 홈페이지 (www.호남마라톤.kr/)
이메일 419marathon@hanmail.net
접수마감 2023년 3월 31일(금) (선착순 500명)
참가문의 061) 375-1201

주최 全南日報
주관 전일엔컬스 마라톤세상
후원 전남남도 광주광역시교육청

